

ECONOMYCHOSUN · 한일경제협회 ·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공동 설문조사

“아베노믹스, 내년까지 한국 경제 부담 준다”

송창섭 기자 realsong@chosun.com



아베노믹스(아베 정부 경제정책)가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은 무엇이며 어떤 업종이 큰 타격을 입을까. 일본 산업·경제 전문가들은 계속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엔저 정책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며(97.7%) 그중에서도 자동차 업종(41.1%)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. <이코노미조선>이 한일경제협회,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과 함께 일본 산업·경제 전문가 43인을 대상으로 ‘아베노믹스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’에 대해 물은 결과 이렇게 나왔다.

일본 정부의 양적 완화 통화정책(엔저)이 우리 경제, 기업에게 부담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3.5%가 ‘약간 부담거리가 될 것’이라고 대답했으며 44.2%는 ‘큰 부담거리가 될 것’이라고 응답해 부정적인 응답은 98%에 가까웠다. 반대로 엔저가 일본 기업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10명 중 5명

이상이 ‘약간 영향을 줄 것’(55.8%)으로, 41.9%는 ‘큰 영향을 줄 것’이라고 답해 일본 정부의 통화 정책이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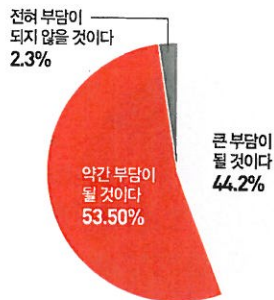
“자동차 업종, 가장 큰 타격 볼 듯”

그렇다면 엔화 약세가 일본 기업에 활력 내지는 성장으로 이어질까. 이에 대해선 ‘그렇다’는 응답이 62.8%를 기록해 ‘아니다’(30.2%)보다 높았다. 당장 일본 기업들이 입는 손해가 상당할 것이라는 뜻이다. 아베노믹스의 긍정적인 효과로는 66.7%가 ‘수출기업 경쟁력 강화’를 지적했고 ‘내수 경제 활력’(15.4%), ‘자신감 등 심리 회복’(12.8%), ‘일본 정부의 시장 지배력 강화’(5.1%)가 뒤를 이었다.

엔화 약세가 미칠 부정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‘국가재정 악화’를 지목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. 60.0%가 ‘국가재정 악화’, 26.7%는 ‘국제 신인도 악화 및 무역 분쟁’, 16.7%는 ‘물가인상’을 꼽았다. ‘내수경제 활성화가 더 관건이며 수출의 국내 생산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라 일본 경제 회복에 주는 효과는 미미할 것’이라는 기타 의견도 있었다.

그렇다면 지금의 엔저 효과가 언제까

● 엔저가 한국 경제에 영향을 줄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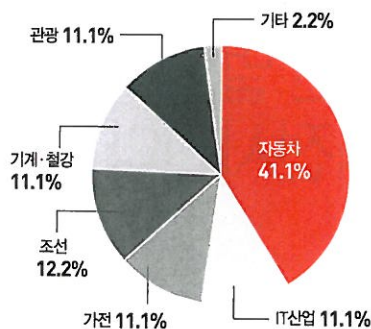
지 유지될 것인가. 연초부터 계속된 환율 변동은 수출 증대를 통한 경기 회복을 꿈꾸는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.

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1.9%가 '내년 상반기까지 엔저가 계속될 것'이라고 답해 절반에 가까웠다. 우리 기업들의 바람인 '올 상반기'는 2.3%에 불과해 당분간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 위축은 불가피하다. '올 하반기'와 '내년 하반기'를 선택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16.3%였으며 '2년 이상 계속될 것'을 전망한 경우도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.

또 일본 정부의 환율 정책이 특히 어떤 산업에 악영향을 줄까. 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1.4%가 '자동차 업종'이라고 답했다. 자동차 업종은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으로 일본이 엔고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상대적인 반사이익을 봤었다. 하지만 정 반대 현상이 나타나자 자동차 업계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이다. 이 외에도 조선업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응답은 12.2%를 기록했으며 IT, 가전, 기계·철강, 관광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대답(11.1%)은 모두 같게 나타났다.

환율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과 비슷

● 엔저가 한국의 어떤 산업에 악영향을 줄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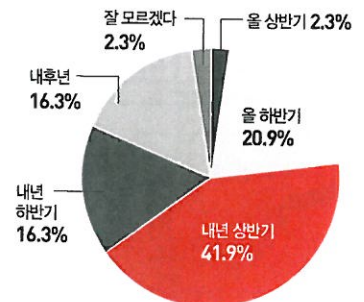
한 성격을 갖고 있다. 손해를 보는 쪽이 있으면 이익을 거두는 업종도 분명 존재한다. 수출기업이 우리 경제 주축이기 때문에 이번 엔저가 주는 타격은 상당하지 만 반대로 환차익을 기대할 업종도 있다.

전문가들은 과연 어느 쪽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을까. 이에 대해선 응답자의 22.5%가 관광산업을 주목했다. 굳이 구분하자면 일본으로 우리 여행객을 실어 내보내는 '아웃바운드 업종'이 환율 변화에 직접적인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. 또 20.0%는 일본으로부터 부품 소재 등을 수입하는 분야를 꼽았다. 원자재 수입업, 석유화학 등이 대표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다. 그 뒤를 12.5%씩 고른 '엔터테인먼트', '기계·철강', 'IT업종'이었다.

“일본, 올 GDP 2% 달성 무난할 듯”

일본 정부의 달라진 환율 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려는 국제사회 공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분석이다. 일각에서는 '제2 환율전쟁'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. 글로벌 통화 전쟁 가능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'아니다'(48.8%)라는 의견이 '그렇다'(34.9%)라는 것보다 다

● 엔저가 언제까지 계속될까



소 높게 나타났다. '잘 모르겠다'는 16.3%를 기록했다. 엔저 정책 이후 올해 예상되는 일본의 경제성장률(GDP 기준)은 아베 내각의 목표치인 2%대를 전망하는 의견(53.%)이 가장 많아 아베 총리의 엔저 정책이 당장은 일본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인 평가였다. 1%대 성장은 37.2%, 0%대는 7%를 기록했고 2.3%는 '마이너스 성장'을 예상했다.

현재 글로벌 통화 시장에서 1달러당 92~95엔은 상징성이 있는 수치다. 일본 정부로서는 그 이상으로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지만 만약 이것이 현실화되면 우리 수출 기업에게는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타날 수 있다.

전문가들 역시 올해 달러당 엔화 가치는 94~96엔 선에서 머무를 것(34.9%)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. 다만 27.9%는 '90~93엔', 25.6%는 '97~100엔'을 선택해 최악의 시나리오인 '95엔 이상'이 재현될 가능성은 낮게 봤다.

하지만 올해 엔화에 대한 원화 가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0.7%가 '엔화 약세 원화 강세'를 예상해 '엔화 강세 원화 약세'(7%)와 '잘 모르겠다'(2.3%)를 크게 앞섰다.